

橫城 鴨谷里의 塔像 (橫城佛蹟其三)

鄭 永 鎬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上龍谷部落 「양당산」 下 발가운데 石塔과 石佛이 南向하여 一線上에 遺存하는데 一帶가 寺址로서 石塔南쪽으로 (一一m) 石築이 殘存하며 周圍에는 瓦片이 散亂하다. 現在 石佛은 「龍雲庵」이라는 草家를 짓고 그 안에 奉安하였는데 全面에 彩色을 하여 本然의 모습을 損傷시키고 있음은 遺憾된 일이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八年前 金某라는 한 處士가 와서 저지른 짓이라 한다. (鴨谷里一里長 鄭明澈氏談話、三三歲) 一、三層石塔



現在 基壇部는 埋沒되어 있어 筆者가 調査時에는 西側一面的의 下基까지 試掘하였었다. (總高三·六m) 二層基壇으로서 下基面石에는 支柱가 一柱 刻出되었고 下甲上面에는 二段의 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 上基面石은 四枚로 構成되었고 中央에 支柱가 一柱있다. 上甲石에는 副椽이 없고 上面에 낮은 二段과 높은 一段의 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는데 初層과 甲石사이에는 仰蓮一枚의 刻임이 있어 注目된 바 이러한 類例는 春川市內의 要仙堂里七層石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刻임들은 厚一五cm、一邊七二·

五cm의 方形에 十六瓣의 仰蓮을 돌렸는데 그 蓮瓣彫刻이 豊麗하다. 各層屋蓋石은 받침이 四段式이며 四隅의 轉角에는 風磬을 달았던 小孔이 있다. 落水面은 平薄하며 直線인 柱에 轉角의 反轉이 어울려서 輕快한 感覺을 준다. 蓋石頂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이 있어 그 위 塔身을 받고 있으며 各層의 塔身에는 兩隅柱가 整然하다. 相輪部에는 椽柱孔이 있는 (徑五cm) 露盤과 寶輪이 完全한데 그 위의 二石은 不完하다. 現在 塔全體가 北傾했으나 埋沒된 部分을 發掘하고 傾斜된 部材를 收拾하면 破損도 그리없는 端雅한 石塔이라 할 것이다. 年代는 基壇部의 構造나 刻임들等 各部手法로 보아 高麗中代의 優作으로서 貴重한 石塔이라 할 것이다. 實測値는(cm) 다음과 같다.

(下基) (上基)

面石高一〇·五 面石高六八 隅柱幅一八
 椽柱幅一八 " 幅九七 甲石長一三一
 甲石厚一〇 撐柱幅一六·五 甲石厚六·五

(一層) (二層)

塔身高四八 屋蓋長一〇六 塔身高一六·五 屋蓋長九四
 " 幅五九·五 " 받침下長六三·五 " 幅四九 " 받침下長五四·五
 隅柱幅九·五 " 上面받침長五五 隅柱幅七·五 屋蓋上面받침長四六
 (三層) (相輪)

塔身高一五 屋蓋長七七 露盤高一二
 " 幅四三 " 받침下長四六 寶輪徑二八
 隅柱幅七·五 " 上面받침長三二 椽柱孔深二四·五
 二、石佛坐像

方形臺座上에 結跏趺座한 毘盧舍那佛이다. 螺髮의 頭頂에 肉髻는 두 鬚이 있고 兩眉間의 白毫는 큼직하다. 相好는 鼻部와 兩耳에 若干의 破損이 있으나 圓滿한데 彩色이 濃厚하여 表情이 不明하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양무릎을 덮었는데 그 衣文이 流麗하게 흘러 衣端은 무릎앞까지 내려졌다. 臺座는 上、中、下臺石으로 構成되었는데

地臺石과 下臺가 一石이다. 下臺石에는 伏蓮을 둘러고 四隅에 귀꽃을 彫飾하였으며 上面에 一段의 높은 角形받침을 刻出한 위에 中臺를 놓았다. 中臺石 四面에는 음직한 眼象一區가 있는데 그 形態는 通式에서 變形된 것으로 그 內에 花瓣의 彫飾이 있다. 上臺石 下面에는 높고 얇은 괴임이 各一段씩 있고 仰蓮이 彫刻되었으며 上面은 平坦하다. 臺座 全部의 彫刻에 赤, 白의 「뽕키」로 彩色하여 本來의 手法를 充分히 볼 수 없음은 甚히 遺憾된 일이다. 年代는 坐像의 相好나 衣文 臺座의 各部 彫刻으로 보아 高麗代로서 前記石塔과 同代로 보아야 할 것이다. 實測值는(cm) 다음과 같다.

- 全高 九五 肩幅 四五 膝高 七三
- 頭高 三四 胸幅 三六 膝幅 二〇
- 下臺高一九 中臺高 三六 上臺高一二・五
- 前面長 九三 前面幅 五三 前面幅 八六・五이다
- 側面長 七二 側面幅 四四 臺座全高 八五

以上の 塔像外에 筆者가 調査時에 域內에서 石造破佛九軀를 收拾하여 草家堂宇東側에 陳列하였는데 그 中二軀는 彫刻도 뚜렷하여 麗代의 作品임을 곧 알 수 있으나 其外는 磨滅이 極甚하여 彫飾을 分別할 수 없다. 아마도 이 石像들은 同寺에 安置되었었던 羅漢像들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 곳 調査는 一九六四年一月十七日에 있었는데 當時 孫基祥 姜敬淑 兩氏와 同行하였었다.

끝으로 이 塔像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記錄되어 있음은 附言한다.

橫城出土 靑銅製小鐘과 무쇠솥

李 浩 官

江原道 橫城郡 橫城面 邑上里一五〇番地 番中에서(寺址로 推定) 一九

第六卷 第二號 通卷五十五號

六四年 十一月 二十 五日에 出土된 遺物을 紹介하고자 한다.

出土된 遺物은 靑銅製小鐘 一口와 무쇠솥 二個 솥뚜껑 一個 靑銅香垵 一口 (破損) 靑磁盞 一個 等 여러點인데 이 中에서도 特別히 靑銅製小鐘과 무쇠솥이 注目되었다. 一、靑銅製小鐘

通型의 小鐘으로 鐘體에는 靑鏽가 덮혀있고 鐘頂에는 龍紐가 있으며 龍紐는 音管에 몸을 붙이고 있으나 音管의 上部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다. 音管에 붙어있는 龍의 彫刻과 비늘은 刻明하고 양옆으로 버틴 두발이 기운찬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에는 如意珠와 節瓶桶을 各 各 쥐고 있다. 鐘體自體는 全體적으로 完全한 것으로 各部의 紋樣은 鮮明하며 鐘肩上緣에는 三角形으로 된 立狀蓮華紋 十瓣이 둘러있고 上下帶에는 雷紋이 새겨져 있다. 乳廓은 四處인데 역시 雷紋으로 둘러 있고 乳廓內에는 蓮花紋을 彫刻한 또렷 또렷한 九乳頭가 있다.

그러나 各乳廓의 크기와 乳廓間의 間隔이 약간씩 相異하며 鐘腹의 撞座는 通式이 아니고 六角形이다. 鐘腹의 菩薩像과 飛天像은 陽刻으로 各各二處 交互로 配置되어 있으나 彫刻手法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鐘體에는 銘文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 제작년대를 알 수 없으나 全體적으로 雅淡한 製作手法과 各部樣式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下代에 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實測值는(cm) 總高 三十二(龍紐高七 包舍) 鐘口徑 二十三, 厚 一一 乳廓幅 一一・五 長 八・五 乳廓間의 間隔 五・三・五.

